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9)



이우제(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응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
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
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
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
하였도다 (계 3:8)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은 능력’과 ‘열린 문’이라는 단어이다. ‘작은 능력’이란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사람들의 모임, 혹은 보잘것없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 그리 드러낼 것이 없었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숫자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재정도 넉넉지 않았으며,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교회이다. 그런 작은 능력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다. 칭찬 일색의 교회로 우뚝 선다.

또 하나의 단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표현이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귀한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될 것이다. 놀라운 점은 그 문을 열면 달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문을 여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달을 자가 없다. 그 어떤 세력의 방해도 없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제 작은 능력과 열린 문의 사이를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교훈을 얻고자 한다. 하나는 ‘불구하고’이고, 다른 하나는 ‘때문에’이다.

“불구하고”라는 단어로 연결할 때 주시는 교훈에 대하여:

두 단어를 ‘불구하고’로 연결하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다. 이렇게 작은 능력 밖에 없으니 닫혀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을 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한 절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그런 교회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다.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열린 문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른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 대접받는 세상에서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고 주문한다.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능력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부와 명예를 부여해 준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준다. 세상이 그런 곳이기에는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능력이 부족하여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렵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도 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인생의 문을 열지 못할 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의 문을 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좋은 자리가 한정돼 있는 세상에서 능력이 작아서 그 기회를 거머쥐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 나는 시시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화려하고 정말 보람 있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빠질 때 우울해진다. 그리고 그 우울함은 삶에 대한 무기력과 두려움을 만든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큰 능력을 가진 이들도 열지 못한 문을 열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금 확인케 해 주신다. 앞으로도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순간 지옥 같았던 우리 마음은 평정을 찾게 된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저 피안의 세계에서만 경험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늘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 같은 심령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지옥 같은 심령을 천국 같은 심령이 되도록 순간순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살아서 이 천국을 마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 더욱이 단지 마음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임하시어 작은 능력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 잘 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닫아 놓으신 문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활짝 열어주신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능력=실패'라는 등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분으로 인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할 수 있다. 더 이상 작은 능력 때문에 주눅 들어 살 필요가 없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초라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 작은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 이유가 없다. 오직 두려워할 것은 내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오직 우리들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주님께 붙들려 쓰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유능한가의 싸움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나보다 앞질러 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러워하거나 그들에게 뒤처질 것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애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의 모습이 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결국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 나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이의 말처럼,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분투하며 그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라는 단어로 연결할 때 주시는 교훈에 대하여:

두 단어를 연결하고 싶은 또 하나는 ‘때문에’이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뿐 아니라,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소박한 교회의 모습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전원마을 같은 곳에 아담하게 지은 그리 크지 않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교회의 그림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8절 후반 절을 보면 그런 상상이 틀린 것임을 말해준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의 교회란 그 어떤 평온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교회에 붙여달린 세찬 시련 앞에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데 작은 능력 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세상적인 능력이 있으면 손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힘 있는 정치가들, 권력가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도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작은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다. 작은 능력을 미덕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기

에 작은 능력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다른 길이 없으니 작은 능력으로 싸워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어떤 인생도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큰 능력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 큰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이 닫혔기 때문이다. 큰 성공으로 가는 문이 닫힌 것이다. 문제 해결로 가는 문이 닫힌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닫힌 문을 경험한 교회이기에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열린 문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이런 것이다. 취업의 문이 수없이 닫히는 것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취업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결혼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도 응답이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도 닫힌 문 앞에 많이 선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시겠노라 위로하시는 것이다.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것일까? 왜 그들에게 작은 능력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쭉쭉 소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몹시도 섭섭한 대목이다.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좀 쉽고 편하게 가게 하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도 속 시원하게 풀기 어려운 물음이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혹시 잘못된 신앙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공식이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문이 닫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항상 '문이 열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혹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신앙 공식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신앙 공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문(사업, 진학, 진급, 성공)이 열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문이 닫히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감사할 날이 올지 누가 아는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문들이 어려움 없이 열린다고 너무 우쭐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렇다고,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지만 뜻대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너무 기죽어도 안 된다. 우리 인생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기를 뒤집는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잘못된 신앙 등식에 따라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끝내 유익한 것인지를 알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그저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어줄 문이 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전후좌우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지혜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현명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수를 만나면 하수들은 고수들의 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수가 짧아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된 최고의 고수이시다. 지금은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런 수를 두시는지를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고수 중에 고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만을 품거나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것으로, 그것들을 적절히 섞여서 인생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 가시는 위대한 연금술사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응시해야 한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을 닫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하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원하는 문을 닫으심으로 그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을 열어 가신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열려지기를 간구하는 문은 '인생 성공'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더 많은 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문은 '인생 성숙'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을 열기 위하여 때로 우리가 열려기를 소원하는 문을 닫기도 하시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밖에 없으니까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문을 닫으신다. 대신에 그들에게 마침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주신다. 그들이 원하는 부강한 교회-부강한 사람이 되는 소원은 단혔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신 것이다. 세상으로 인하여 부요한 교회로 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는 문은 막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교회로 가는 문을 여신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임한 귀한 축복은 문을 여시기 전에 문을 닫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치 않으신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다. 주님은 결코 문을 닫기만 하시지 않는다. 닫으신 후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 때때로 문을 닫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다 열어주시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편함의 신을 숭배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작은 능력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고, 우

리 앞에 닫힌 문이 있으니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교회적인 약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력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작은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무능의 고백이 정말 힘든 것이다. 이유는 내 무능의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유능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없이 무력한 자이면서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두는 차원으로 전략해 버린다. 나의 유능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나의 작은 능력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러기에 작은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능력 때문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능력이 작아야 쓰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패배주의 기독교이다. 이 말의 진의는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서 쓰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절대변수임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내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22절과 예레미야 17:7-8절이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써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7-8).”

우리의 작은 능력,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어느 분의 말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알고 무능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이 되어주실 것이다. 